

1. 다음 중 높임말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말씀
- ② 주무시다
- ③ 진지
- ④ 약주

2. 다음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 기둥을 받쳤다.
- ② 고개를 넘어 가면 / 산 너머에 희망이 있다.
- ③ 세금이 잘 걸린다. / 갑사를 거쳐 어디로 간다.
- ④ 논을 붙였다. / 흥정을 부쳤다.

3. 다음 문장 중 보기와 같이 전환하기 어려운 것은?

문이 바람에 열렸다. ---> 바람이 문을 열었다.

- ① 그에게 머리가 받쳤다.
- ② 그는 냉혹한 현실에 부딪혔다.
- ③ 못이 벽에 단단히 박혔다.
- ④ 그 소문이 나에게 들렸다.

4. 단위어가 틀린 것은?

- ① 바늘 한 쌈 - 24개
- ② 오징어 한 축 - 20마리
- ③ 배추 한 접 - 20포기
- ④ 고등어 한 손 - 2마리

5. 외래어 표기법 옳은 것은?

- ① 초콜릿
- ② 슈퍼마켓
- ③ 오렌지쥬스
- ④ 텔레비전

6. 다음 중 문법에 맞게 단어가 사용된 것은?

- ① 최근 시험에서는 객관식의 비중이 얕아지고 있다.
- ② 이번 헌법의 개정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확 정된다.
- ③ 기상대는 눈이 그치는 주말부터는 평년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 ④ 그 학자는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7. 다음은 정지용 시인의 호수이다. 이 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湖水만 하니/ 눈 감을밖에

- ① 시각적 심상이 떠오른다.
- ② 글쓴이의 그리움이 간절하다.
- ③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 ④ 호수의 함축적 의미는 크고 넓다는 것이다

8.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실재하는 형상들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보든 똑같은 보편 타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실험 등으로 이를 찾아낼 수 있으며 이것이 과학자의 일이다.

- ① 법칙의 객관성
- ② 법칙의 통속성
- ③ 법칙의 동시성
- ④ 법칙의 특수성

9. 금오신화 작품이 아닌 것은?

- ①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 ②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
- ③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 ④ 전등신화(剪燈新話)

10. 한자 어휘 틀린 것은?

- ① 高踏的
- ② 國醉主義
- ③ 隨意契約
- ④ 典型的

11. 소설의 특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소설은 꾸며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실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나 존재할 만한 인물을 그린다. 즉 그럴 듯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 ① 허구성
- ② 개연성
- ③ 진실성
- ④ 서사성

12. 다음 중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이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 ①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즉 이성은 인간을 동물로부터 구별시켜 주는 능력인 것이다.
- ② 산업사회에서는 인간 조정의 가능성이 인간 운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발달된 과학과 기술이 인간을 조정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③ 사람들은 시각에 의해 색깔을 보고, 청각에 의해 소리를 듣는다. 그에 반해 후각은 냄새를 맡게 해 주고 미각은 음식을 맛보게 해 준다.
- ④ 무속신앙은 우리 민족의 무의식과 결합되어 현실적으로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와 사찰이 도심 곳곳에 들어서 있는 가운데도 산 속에 남아있는 성황당이 이 점을 잘 말해준다.

13. 다음 글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인물제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이 좀 처지는 축으로는 장구 멘, 하얀 베수건 어깨에 걸고 싱긋이 웃으며 큰 귀를 점잖게 가누어 맴을 도는 이용(李龍)이다. 그는 누구니 누구니 해도 마을에선 제일 풍신 좋고, 인물 잘난 사나이, 마음의 응어리를 웃음으로 풀며 장단을 치고 있다.

- ① 극적제시
- ② 분석적 제시
- ③ 해설적 제시
- ④ 직접적 제시

14. 다음 한시를 읽고 주제가 압축적으로 제시된 구(句)와 관련성이 높은 고려가요로 적합하게 짝지어진 것은?

비 갠 긴 언덕에 풀빛이 진한데
남포로 임보내니 노랫가락 구슬퍼라
대동강 물이 어느 때에나 다하겠는가.
해마다 이별 눈물만 푸른 물결에 더하거니

- ① 청산별곡
- ② 서경별곡
- ③ 사모곡
- ④ 동동

15. 다음 이세현의 '사리화'의 주제로 바른 것은?

黃雀何方來去飛 황작하방래거비
一年農事不曾知 일년농사부증지
鰥翁獨自耕耘了 환옹독자경운료
耗盡田中禾黍爲 모진전중화서위

- ① 농촌 생활의 풍요로움과 흥겨움을 노래
- ② 지난 역사의 회고와 고려 국운회복의 희망
- ③ 한가로운 자연 속에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
- ④ 권력자들의 농민수탈에 대한 비판

16. 다음 예문 중 우리말 화법에 맞는 것은?

- ①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부하 직원에게 남편을 바꾸어 달라고 할 때
→"과장님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 ② 직장 상사에게 점심인사를 할 때
→"부장님, 식사하셨어요?"
- ③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업무부 홍길동 과장입니다."
- ④ 상사에게 꾸지람을 받았음을 말할 때
→"오늘 김 부장님한테 야단들었어요"

17. 다음 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네뛰기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그네를 탈 때에는 그넷줄을 놓치지 않으려면 판에 계속 힘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높이 차오르기 위해서는 온몸의 탄력을 이용하여 빠르고 힘차게 발을 굴러야 한다. 그네뛰기는 예로부터 주로 여성들이 즐겨 온 대표적인 민속놀이 중 하나이다. 이처럼 그네뛰기는 근육을 강화하고 민첩성을 기르는 데 적합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 ① 필요한 문장 성분을 빠트렸다.
- ② 문장의 호흡이 너무 길어 산만하다.
- ③ 동일한 의미를 지닌 구절이 중복되었다.
- ④ 내용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18. (가)를 (나)와 같이 창의적으로 바꾸어 썼다고 할 때, 그 효과를 평가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

시어마님 며늘아기 낮바 벽 바닥을 구르지 마오
빗에 바든 며느린가 갑세 쳐 온 며느린가.

밤 나모 석은 등걸에 휘초리 나니갓치 양살피신
쉬아버님, 벋 뵈 싯똥 갓치 되종고신 쉬어마님,
삼년 겨론 망태에 새 송곳부리갓치 뽀족하신
쉬누의님, 당(唐)피 가론 밧퇴 돌피 나니 갓치 쇠노란
외곳 갓튼 피똥누는 아들 하나두고,

건밧퇴 메곳 갓탄 며느리를 어딴를 낮바 하시난고

(나)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무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 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새하나 할림새요 시누하나 뽀족새
시아지비 뽀중새요 남편하나 미련새요
자식하난 우는새요 나 하나만 썩는쌔세
귀 먹어서 삼년이요 눈 어두워 삼년이요,
말 못해서 삼년이요 석 삼년을 살고나니
배꽃간던 요내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 ① 음보율을 3음보로 변형시켜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② 청자가 독자에서 남편으로 변하여 훨씬 생동감이 넘친다.
- ③ 시덱 식구에 대한 비판적 어조가 자조적 어조로 변했다.
- ④ 풍자의 대상이 비유로 좀 더 구체화 되었고 범위가 좁혀졌다.

19.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1) 나는 고기와 과일을 좋아한다.

(2) 현재의 컴퓨터는 계산기와 완전히 다른 기계나.

(1) 그렇게 천천히 걷다가는 지각하겠다.

(2) 그는 종일 하늘에 떠가는 구름만 보고 있다.

- ① 가(1)의 문장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 ② 가(2)의 ‘와’는 비교의 기능을 하는 조사이다.
- ③ 나(1)의 ‘는’은 관형사형 어미
- ④ 나(2)의 ‘는’을 통해 ‘떠가다’라는 어휘를 ‘구름’을 꾸밀 수 있게 되었다 .

20. 다음의 내용과 어울리는 한자성어는?

천하(天下)의 성군(聖君)으로 꼽히는 요임금이 천하를 통치한 지 50여년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의 통치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평복으로 거리에 나섰다. 어느 네거리에 이르자 어린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요임금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 ① 금의환향(錦衣還鄉)
- ② 제행무상(諸行無常)
- ③ 고복격양(鼓腹擊壤)
- ④ 수적천석(水滴穿石)